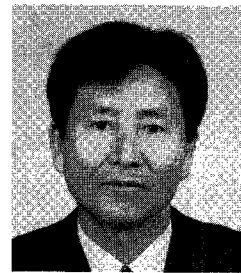


전시장 배치, 전문적 상담, 대회 홍보가 세계화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점으로 부각되었다



양 기 원
효리 애계원 대표

지난 '93년에 이어 2년만에 다시 열린 제3회 '95한국양계박람회는 이제 우리나라 양계인들만의 행사는 아닌 듯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대만에서 온 단체관람객들이 꽤 다녀 간 듯했으며 한 일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약 30여명이 다녀갔다는 기사가 일본 신문에 실렸다고 했기 때문이다. 회를 거듭해 갈수록 다채로워지는 각종 행사나

전시물품, 전시기술 등을 볼 때 한편으로 우리 나라 양계산업의 앞날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되었다고 본다. 다만 몇가지 안타까웠던 점이라면 50년만의 폭우로 그것도 행사 기간 내내 장대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를 입혔던 결과 일부 집중 호우 지역에 있

는 대다수 양계인들이 박람회 방문 일정을 눈물을 머금고 취소했다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같은 양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안타까웠다.

사실 양계박람회는 글자 그대로 우리 모든 양계인들과 양계에 관련된 모든 업체 사람들의 잔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세계인의 화합을 위한 잔치이듯 양계박람회도 양계인들이 양계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류의

사람들과 함께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기술적인 발전상을 보고 배우고 토론하는 그러한 박람회가 되어야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번 제3회 양계박람회에서도 다음 박람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전 시기간 동안 참관했던 양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로는 본인이 산란계를 하고 있는 양축가이므로 역시 산란계 자동화 시스템을 눈여겨 보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 특히 국산 제품의 경우 아직도 기초적인 연구와 기본적인 바탕도 없이 유명 외국제품을 부분적으로 모방해서 걸만 번 지르르하게 만들어 전시한 듯했다.

잘 팔리고 성능이 좋은 시스템은 왜 그렇게 설계하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서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조사, 분석,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무작정 모방에만 그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예를 들어서 케이지(Cage)의 경우만 해도 충분히 품질

좋은 원자재를 써서 내구성을 높이고 제값을 받으려는 노력 대신 그저 싸게만 만들어서 팔려는 경향이 짙었으며 닭의 기초 생리나 습성 등을 학계 또는 관계기관 또는 실제 양축가들과 공동 연구해서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좀더 케이지의 규격이나 재질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거의 변화가 없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업체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물론 값싼 제품만 찾는 우리 내 일부 양축가들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더 큰 책임은 역시 케이지 시설 업체에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번에 출품된 세계적인 메이커들의 대리점을 보면 거의가 다 100% 수입 완제품을 전시해 놓은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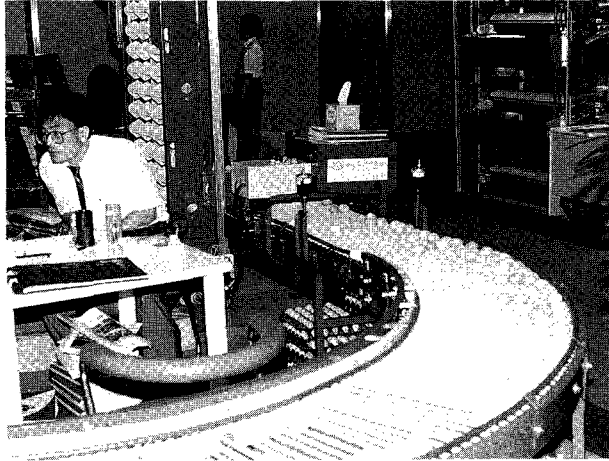
특히 유럽이나 일본 메이커의 대리점들은 더욱 그러했다. 이웃 일본만 해도 벌써 어떤 나라의 제품이건 많은 부분을 국산화 개발하여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원래 제품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 파니는 노력과 연구의 흔적들이 행사 때마다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과 우리 나라와는 아직도

기술이나 자본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점들보다는 정신적인 자세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다는 핑계만으로 일괄할게 아니라 이제 부터라도 합심 노력하여 국산기계의 품질개선에 앞장서 나가주기 바라는 바이다. 다행히 최근 축산기자재협회가 그간의 부진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기대를 가져 본다.

둘째로는 행사를 주관했던 주최측과 모든 참가업체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선 주최측에 대한 바람이라면 전 시장을 좀더 효과적으로 배치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예를 들어 산란계 자동화 업체만 모아 놓거나 GP 기계 업체만 같은 구역 안에 모아놓거나 한다면 우리 양축가들이 그런 구역에 갔을 때 쉽게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쉽게 얻고 교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동종업체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집중력이 약해지고 압축되고 효율적인 상담이 제대로 못 이루어진

것 같았다. 물론 이런 경우 한 회사가 여러가지 부문을 취급하는 경우 소속 배치가 어렵겠지만 그럴 경우엔 그 참가업체와 상의하여 가장 내세울만한 품목이 속한 구역에 넣어 주면 되리라 본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데 각 참가업체 상담직원들의 자세 문제이다.

일부 업체는 상담원이 전시한 물품의 가격은 물론 사양(仕様)이나 규격도 제대로 모르는 직원을 배치하여 고객 상담에 응하게 하는 등 좀 성의 없는 업체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이 박람회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 박람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다. 본인의 경우 일본 친구와 함께 모업체를 방문해 통역겸 상담을 하다 보니 언어 소통은 둘째치고 틀린 글자가 여기저기 인쇄된 팜플렛하며 가격도 제대로 못 가르쳐 줘(물론 신제품이라 그렇다고 변명은 했지만) 낭패를 당했던 경우를 들

이켜 볼 때 정말 창피스럽기까지 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우리 축산업계도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에 동참해야만 한다. 말로만 떠드는 그런 세계화, 국제화가 아니라 진정한 준비가 수반된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먹자판 분위기를 좀 지양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없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요란하고 많아서 대부분의 일반인 관람객들은 염불보단 잣밥 생각만 하듯 그런 코너만 기웃거리다 가는 경우도 많았었다고 한다. 기왕에 박람회를 구경 왔으면 식품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 사육 시설이라든가 제반여건들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가면 좋

으려만 그렇지 못했던 것은 주최측이나 관련업체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홍보 및 판촉물로 주로 어린이들에게 병아리를 나눠줘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때도 자기 회사 홍보에만 주력

할게 아니라 달걀 달고기가 담긴 내용을 만화나 그림책으로 만들어 병아리와 같이 나눠줬더라면 양계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관심이 더욱 많아졌으리라 여겨진다.

셋째로는 박람회 장소와 개최시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본인처럼 서울에서 수백km 떨어진 곳에 있는 양축가들이 한번 서울 나들이를 하려면 보통 큰 마음 먹지 않고는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금년처럼 폭우가 쏟아진 경우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소를 꼭 서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전이나 대구, 부산, 광주 등 충분히 이만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도시가 있으니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해 꼭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하게 될 경우라도 주최측에서는 지방 관람객들(특히 양축가)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정보 교환을 위하여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예를들어 유스호스텔)을 미리 신청을 받아 예약해 주면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개최시기는 가급적 봄, 가을이나 아니면 겨울에라도 했으면 싶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애틀랜타 양계 박람회가 매년 1월에 어김없이 열리고 가까운 일본의 나고야 양계, 양돈 박람회도 2년에 1번씩 4월경에 열리듯이 우리 한국양계 박람회도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한다.

그래야 꺾통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보다 많은 관람객이 박람회를 찾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주최측에서도 여러모로 많은 애를 쓰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다음에는 꼭 좋은 시기를 잡아 줬으면 싶다. 만일 봄, 가을에 개최된다면 4계절이 뚜렷한 우리 나라의 장점을 살려 동남아 양계 후진국들의 양축가들이 관광점

박람회 관람객으로 많이 불러들여 외화 획득은 물론 우리나라 양계 산물이나 시설을 수출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도 개최시기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에 계신 높은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끝맺을까 한다. 본인은 이번 박람회 기간중 외국손님 맞이 관제로 전시기간 내내 서울에 머물렀다. 덕분에 충분한 구경도 할 수 있었기에 보람있는 기간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꼭 왔어야 했을 중요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다름아닌 전국의 농대 축산과 학생들이 안내 및 자원봉사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전국에 있는 농고나 농대 축산과 학생들의 단체 관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매우 아쉬웠다. 만일 방학 기간중이라 그랬다면 다음부터는 방학 전에 미리 박람회 개최 기간중 하루를 일시 소집일로 잡아 단체로 관람을 시켜 준다면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 점점 더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점은 더욱 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은 전해듣기도 하고 직접 느끼기도 하고 했기에 정말 많은 말들을 담고 싶었지만 워낙 글재주가 없어 황설수설 하다가 만 듯하다.

다시 한번 본인을 비롯한 모든 양계인과 관련된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한국양계박람회'는 더이상 우리나라 양계인들 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따라서 회가 거듭될수록 더욱 변화되고 발전되는 양계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채란 양계 산업도 한국 독자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시 사람 두뇌의 집약이므로 우리 축산 농가도 이제 단합과 연구와 노력 없이는 국제 경쟁 속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다.

끝으로 행사 준비에 애써 주신 양계협회 임직원 여러분 및 박람회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양계인인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